

2022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 인하폭은 과거 대비 낮으나, 금리 및 정책 방향성이 주요 변수

김서연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 02-2014-6256 seoyeon.kim@nicerating.com

송기중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3실장 02-2014-6225 song72@nicerating.com

2021.12.24.

SUMMARY

우대가맹점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결정

- 금융위원회는 2021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2022년 이후 적용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확정했다. 금번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된 가맹점수수료율은 2022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은 우대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인하폭은 상이하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기존 0.8% 에서 0.5%로 가장 높은 인하폭인 0.3%p 가 결정되었으며,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의 경우 0.2%p(기존 1.3% → 변경 1.1%),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0.15%p (기존 1.4% → 변경 1.25%),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은 0.1%p(기존 1.6% → 변경 1.5%)의 단계적 인하가 결정되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폭은 과거 및 기존 예상치 대비 낮은 수준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번 수수료율 인하 효과는 약 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 1~9월 7개 전업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 누적 가맹점수수료수익(7.8조원)의 6.1%에 해당되며, 동일 기준 영업수익(13.4조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2021년 가맹점수수료수입, 가맹점매출액(1~9월 실적 연율화 기준) 및 금융위원회 예상 수수료율 인하 효과인 4,700억원을 기반으로 추산할 경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총 가맹점수수료 / 총 가맹점매출액)은 약 6bp(1.40% → 1.3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ROA 저하폭은 0.2%p (2.0% → 1.8%) 이다. 이전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인 2015, 2018년에 동일 기준 각각 23bp, 10bp의 수수료율 하락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번 조정폭은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지난 2021년 9월 29일 [“유동성 Peak-out과 새로운 환경변화, 여전사는 준비되어 있는가? \(1\) 신용카드 :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금리상승 대응능력 점검”](#)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율 인하가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상기 보고서의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나신평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10bp 인하 시 약 0.4%p, 20bp 인하 시 약 0.8%p의 직접적인 ROA 저하를 예상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맹점수수료율 조정폭 및 이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과거(2015, 2018년) 사례 및 기존 나신평 예상 시나리오 대비 완화된 수준이다.

- 또한, 수수료를 인하가 가맹점수수료 전체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점차 상쇄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판이용실적이 명목GDP와 연동하여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수수료를 인하 이후에도 카드이용실적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분이 2~3년의 기간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 충격을 점진적으로 상쇄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수수료를 인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증폭된 바 있다.

향후 모니터링 포인트

- 신용카드사의 사업위험에 있어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가맹점수수료를 조정해 따른 수익성 저하는 그 실질 효과가 과거 예상 대비 작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유동성 Peak-out과 새로운 환경변화, 여전사는 준비되어 있는가? \(1\) 신용카드 : 가맹점수수료를 인하와 금리상승 대응능력 점검”](#)에서도 논의한 것처럼, 수수료를 재산정 이후 카드사 수익성 및 신용위험의 향후 방향성은 비용 추가 절감 여부, 비결제자산 성장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1. 예상보다 빠른 시중금리 상승 속도 - 높아진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 상승 가능성

2019년과 달리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손 및 이자비용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향후 수익성에 있어 주요 하방요인 중 하나이다. 2021년 하반기 들어 여전채 수익률 및 신규 발행 카드채의 금리는 2018년 상반기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최근 상승세를 감안 시 신규 발행 카드채 금리가 만기 상환 채권의 평균금리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이르면 2022년 중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자비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 방향성은 연체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국고채 3년물 기준 금리 상승기였던 2016~2018년 사이 대출성 카드자산(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성 리볼빙) 연체율은 상승한 반면, 2019년 이후 금리 하락 시기의 경우 연체율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2021년 이후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카드사의 연체율과 대손비용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대규모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비롯해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 공급에 나섰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이후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적 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유동성 지원조치가 종료된 이후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현실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2.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카드대출 성장 둔화 가능성

2021년 1~9월 기준 신용카드 7사 합산 기준 대출성 카드이용실적(카드론, 현금서비스)은 75.5조원으로, 전년 동기(71.7조원) 대비 5.2% 증가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된 가운데,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권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사의 대출성 카드자산(카드론, 현금서비스)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2022년 1월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산출에 포함된다. 또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규제 등이 추가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감안할 때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신규대출 취급 한도가 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3. 결론

가맹점수수료를 하향 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은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손 및 이자비용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성자산 취급자산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점은 향후 수익성에 있어 주요 하방요인 중 하나이다.

다만, 민간소비 활성화에 따른 카드이용실적 증가, 할부금융·리스영업 확대로 취급자산이 증가하거나, 카드사의 자체적인 카드비용 및 판관비용 효율화가 동반될 경우 수익성 저하 폭은 완화될 것이다. 2021년 12월 현재 KB국민, 롯데카드가 회망퇴직을 발표하는 등 각 카드사별로 비용 효율화 노력이 진행 중이며, 향후 타 카드사에서도 비용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나신평은 향후 ① 비용절감 및 시장점유율 관련 신용카드사별 영업 전략, ② 국내·외 실물 경기 추이 및 정부 정책 변동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등의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용등급 결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목차

| | |
|---|---|
| I. 우대가맹점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결정 | 5 |
| II. 가맹점수수료율 인하폭은 과거 및 기존 예상치 대비 낮은 수준 | 6 |
| III. 향후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 | 7 |

I. 우대가맹점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결정

금융위원회는 2021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2022년 이후 적용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확정했다. 금번 가맹점수수료를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인화된 가맹점수수료율은 2022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은 우대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인하폭은 상이하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기존 0.8% 에서 0.5%로 가장 높은 인하폭인 0.3%p 가 결정되었으며,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의 경우 0.2%p(기존 1.3% → 변경 1.1%),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0.15%p (기존 1.4% → 변경 1.25%),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은 0.1%p(기존 1.6% → 변경 1.5%) 의 단계적 인하가 결정되었다.

표 1.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내역

| | 연매출 | 가맹점 유형 | | | | 조정년도(최초 적용일 기준) | | | | |
|----|-----------|--------|------|------|------|-----------------|---------|---------|----------|----------|
| | | 2012 | 2016 | 2019 | 2022 | 2012 | 2016 | 2017 | 2019 | 2022 |
| 신용 | ~2억원 | 영세 | 영세 | 우대 | 우대 | 1.5% | 0.8% | 0.8% | 0.8% | 0.5% |
| | 2~3억원 | 중소 | 영세 | 우대 | 우대 | 2.0% | 1.3% | 0.8% | 0.8% | 0.5% |
| | 3~5억원 | 일반 | 중소 | 우대 | 우대 | 2% 내외 | 2% 내외 | 1.3% | 1.3% | 1.1% |
| | 5~10억원 | 일반 | 일반 | 우대 | 우대 | 2% 내외 | 2% 내외 | 2% 내외 | 1.4% | 1.25% |
| | 10~30억원 | 일반 | 일반 | 우대 | 우대 | 2% 내외 | 2% 내외 | 2% 내외 | 1.6% | 1.5% |
| | 30~100억원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2% 내외 | 2% 내외 | 2% 내외 | 평균 1.9% | 평균 1.9% |
| | 100~500억원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2% 내외 | 2% 내외 | 2% 내외 | 평균 1.95% | 평균 1.95% |
| | 수수료 상한 | - | - | - | - | 2.7% | 2.5% | 2.3% | - | - |
| 체크 | ~2억원 | 영세 | 영세 | 우대 | 우대 | 1.0% | 0.5% | 0.5% | 0.5% | 0.25% |
| | 2~3억원 | 중소 | 영세 | 우대 | 우대 | 1.5% | 1.0% | 0.5% | 0.5% | 0.25% |
| | 3~5억원 | 일반 | 중소 | 우대 | 우대 | 1.5% 내외 | 1.5% 내외 | 1.2% 내외 | 1.0% | 0.85% |
| | 5억~10억원 | 일반 | 일반 | 우대 | 우대 | 1.5% 내외 | 1.5% 내외 | 1.5% 내외 | 1.1% | 1.0% |
| | 10억~30억원 | 일반 | 일반 | 우대 | 우대 | 1.5% 내외 | 1.5% 내외 | 1.5% 내외 | 1.3% | 1.25% |
| | 30억원 초과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1.5% 내외 | 1.5% 내외 | 1.5% 내외 | 평균 1.45% | 평균 1.45% |

자료: 금융감독원, NICE신용평가 정리

주: 음영 부분은 2022년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된 구간

II.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폭은 과거 및 기존 예상치 대비 낮은 수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번 수수료를 인하 효과는 약 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 1~9월 7개 전업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 누적 가맹점수수료수익(7.8조원)의 6.1%에 해당되며, 동일 기준 영업수익(13.4조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21년 가맹점수수료수입, 가맹점매출액(1~9월 실적 연율화 기준) 및 금융위원회 예상 수수료를 인하 효과인 4,700억원을 기반으로 추산할 경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총 가맹점수수료 / 총 가맹점매출액)은 약 6bp(1.40% → 1.3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ROA 저하폭은 0.2%p (2.0% → 1.8%) 이다. 이전 수수료를 재산정 시기인 2015, 2018년에 동일 기준 각각 23bp, 10bp 의 수수료를 하락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번 조정폭은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그림 1. 신용카드사 합산 ROA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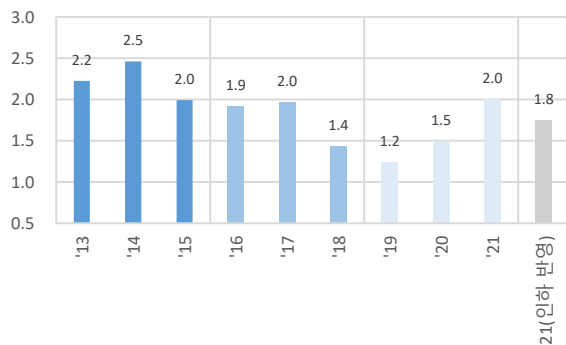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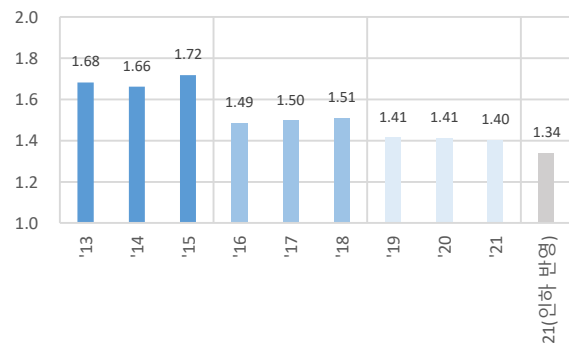


그림 2. 신용카드사 합산 가맹점수수료율 추이

단위: %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주 2021년 수치는 2021년 1~9월 실적 연율화 기준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주 1: 가맹점수수료율은 가맹점수수료수입과 가맹점매출액의 비율로 산출

주 2 2021년 수치는 2021년 1~9월 실적 연율화 기준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지난 2021년 9월 29일 [“유동성 Peak-out과 새로운 환경변화, 여전사는 준비되어 있는가? \(1\) 신용카드 : 가맹점수수료를 인하와 금리상승 대응능력 점검”](#) 을 통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가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상기 보고서의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나신평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10bp 인하 시 약 0.4%p, 20bp 인하 시 약 0.8%p 의 직접적인 ROA 저하를 예상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맹점수수료율 조정폭 및 이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과거(2015, 2018년) 사례 및 기존 나신평 예상 시나리오 대비 완화된 수준이다.

또한, 수수료율 인하가 가맹점수수료 전체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점차 상쇄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판이용실적이 명목GDP와 연동하여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수수료율 인하 이후에도 2~3년에 걸쳐 카드이용실적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분이 수수료율 인하 충격을 점진적으로 상쇄하였으며, 이 효과는 수수료율 인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증폭된 바 있다.

Ⅲ. 향후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

신용카드사의 사업위험에 있어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가맹점수수료율 조정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그 실질 효과가 과거 예상 대비 작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유동성 Peak-out과 새로운 환경변화, 여전사는 준비되어 있는가? (1) 신용카드 :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금리상승 대응능력 점검” 에서도 논의한 것처럼, 수수료율 재산정 이후 카드사 수익성 및 신용위험의 향후 방향성은 비용 추가 절감 여부, 비결제자산 성장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1. 예상보다 빠른 시중금리 상승 속도 - 높아진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 상승 가능성

2019년과 달리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손 및 이자비용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향후 수익성에 있어 주요 하방요인 중 하나이다. 2021년 하반기 들어 여전채 수익률 및 신규 발행 카드채의 금리는 2018년 상반기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최근 상승세를 감안 시 신규 발행 카드채 금리가 만기 상환 채권의 평균금리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이르면 2022년 중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자비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3. 신용등급별 카드채 가중평균 발행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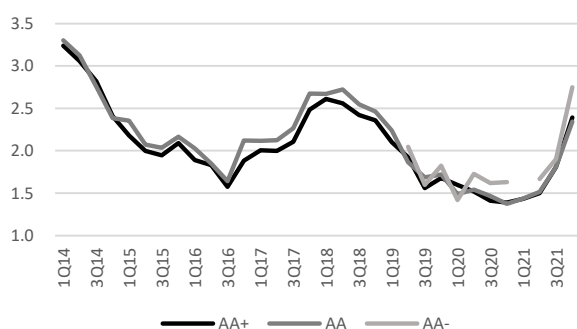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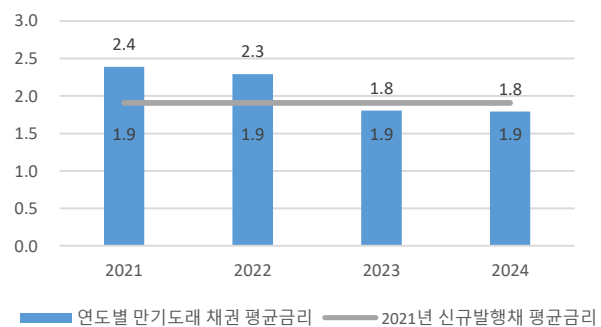


그림 4. 카드채 신규발행 평균금리/만기도래채 평균금리 비교

단위: %



자료: Bondweb, NICE신용평가 정리
주: 3년물 가중평균, 신용등급은 발행일 기준

자료: Bondweb, NICE신용평가 정리
주 1: 채권 평균 금리는 발행 채권의 표면금리를 발행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치
주 2: 기준일은 2021년 12월 22일

금리 방향성은 연체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국고채 3년물 기준 금리 상승기였던 2016~2018년 사이 대출성 카드자산(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성 리볼빙) 연체율은 상승한 반면, 2019년 이후 금리 하락 시기의 경우 연체율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2021년 이후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카드사의 연체율과 대손비용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대규모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비롯해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 공급에 나섰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적 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유동성 지원조치가 종료된 이후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현실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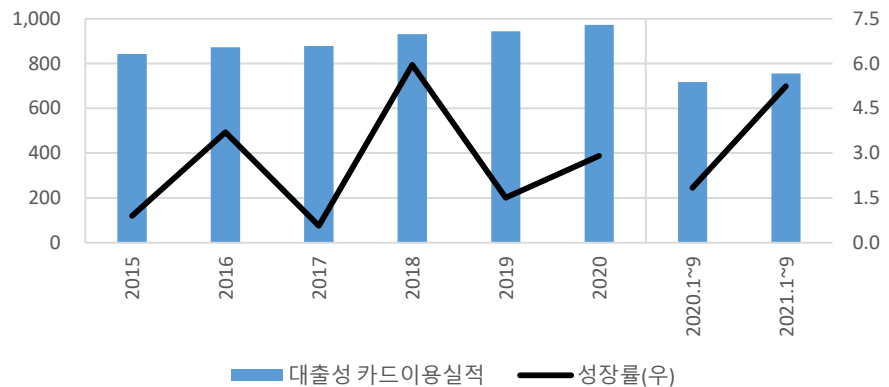
2.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카드대출 성장 둔화 가능성

2021년 1~9월 기준 신용카드 7사 합산 기준 대출성 카드이용실적(카드론, 현금서비스)은 75.5조원으로, 전년 동기(71.7조원) 대비 5.2% 증가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된 가운데,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권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사의 대출성 카드자산(카드론, 현금서비스)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2022년 1월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산출에 포함된다. 또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규제 등이 추가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감안할 때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신규대출 취급 한도가 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대출성 카드이용실적 및 성장률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각 사업무보고서
 주: 성장률은 연간 또는 전년동기 말 기준

3. 결론

가맹점수수료를 하향 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은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손 및 이자비용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성자산 취급자산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점은 향후 수익성에 있어 주요 하방요인 중 하나이다.

다만, 민간소비 활성화에 따른 카드이용실적 증가, 할부금융·리스영업 확대로 취급자산이 증가하거나, 카드사의 자체적인 카드비용 및 판관비용 효율화가 동반될 경우 수익성 저하 폭은 완화될 것이다. 2021년 12월 현재 KB국민, 롯데카드가 희망퇴직을 발표하는 등 각 카드사별로 비용 효율화 노력이 진행 중이며, 향후 타 카드사에서도 비용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나신평은 향후 ① 비용절감 및 시장점유율 관련 신용카드사별 영업 전략, ② 국내·외 실물 경기 추이 및 정부 정책 변동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등의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용등급 결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참고자료

[<2022 산업전망 - 신용카드 - 규제 강화, 금리 상승이 불러올 간조의 시간>\(2021.12.09\)](#)

[<유동성 Peak-out과 환경변화, 여전사는 준비되어 있는가? \(I\) 신용카드 :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금리상승>\(2021.09.29\)](#)

[<\[2021년 상반기 신용카드\] 경기 회복 속도와 정책 변화 주시 예정>\(2021.06.09\)](#)

[<2021 산업전망 및 산업위험 평가 - 신용카드>\(2021.01.04\)](#)

[<금융업권 2020년 신용등급 변동과 2021년 방향성 - 유동성의 힘이 만들어낸 반전, 이제는 부채의 역습에 대비해야 할 때>\(2021.01.04\)](#)

[<실물경제와 금융간 괴리 심화, 금융업종별 실질 건전성 수준은? \(II\) 신용카드 - 다중채무자 자산 중심 잠재 부실요인 분석>\(2020.09.23\)](#)

[<\[Special - 코로나19\] 2020년 상반기 정기평가결과 \(3\) 신용카드>\(2020.06.08\)](#)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시장안정화에 기여, 단, 재무안정성 저하가능성 우려 - 증권업 및 신용카드업 모니터링 강화 예정>\(2020.04.23\)](#)

[<2020 산업전망 및 산업위험 평가 - 신용카드>\(2019.12.03\)>](#)

[<신용카드사 현황 점검 및 이슈 분석 - 가맹점수수료 인하 영향과 신용카드사의 향후 대응방안>\(2019.11.13\)](#)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은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 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